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2)(4/8/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4 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함, 3-4 절

요 8:12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엡 5:8 -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후 4:6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막 4:39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 오, 모든 피조된 빛들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빛이시여, 위로부터 그 빛을 비추셔서(시 144:6),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소서. 그 빛의 모든 능력으로 내 영혼에 순전함과 즐거움과 맑음과 생기를 주셔서, 놀라운 기쁨 가운데서 주를 꼭 붙들게 하소서. 내가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려 왔던 저 복된 날, 곧 주의 임재로 나를 가득 채우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그 날은 언제나 올까요? 그 날이 오기까지는, 나의 기쁨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슬프게도 여전히 내 안에는 옛 사람이 살아 있어서(롬 7 장), 아직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였고,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옛 사람은 여전히 성령을 거슬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있고, 내면의 전쟁들을 일으켜서, 내 영혼에 평화로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4. 주님은 흥용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사납게 출렁이는 파도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오니(시 89:9),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을 흠으시고(시 68:30),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크고 기이한 역사들을 나타내셔서, 주의 능력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소서. 내게는 주 나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피난처도 없습니다.

**말씀과 해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본격적으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빛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다. 시 27:1 -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일 1:5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요 8:12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면서 빛은 하나님적인 것, 선하고 성결한 것이고, 어둠은 반하나님적이며, 악하고 불결한 죄악의 상태에 비유한다. 요 3:19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엡 5:8 -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울러 빛은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묘사된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 고후 4:6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님은 주님을 믿고 알게 하는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조명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고전 2:12-14 -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빛처럼 어떤 것을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다. 요 16:8 -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신다. 롬 2:4 -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일어난 현상 중의 하나는 회개였다. 행 2:37-38 -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우리 내면의 모든 종류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 내고, 지성과 영성과 구체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빛이 의미하는 모든 선한 모습들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영적 행복을 누린다.

성도는 내면의 참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빛의 역사와 같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바라고 간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라져야 할 것들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 거센 파도와 폭풍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죄와 정욕은 우리의 마음의 호수를 요동하게 하게 한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미움, 갈등, 걱정과 근심도 마치 폭풍이 일어나듯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내면의 동요와 문제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한다. 막 4:39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내 안에서 잠잠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거세게 일어나는 욕심, 정욕, 분노, 미움이 있는가? 세상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마치 폭풍처럼 일어나 나를 삼키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는가?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바다, 삶의 바다도 고요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셨는데도 공포에 질려 호들갑을 떨었던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버리고, 나의 인생의 배에 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온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항해를 계속하자.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툼, 대립, 사고, 전쟁의 폭풍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잠잠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의 역사,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권영봉, 이창배, 전만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전쟁이라는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계속되는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 하루 속히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서게 하옵소서.
3.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 하는 분들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